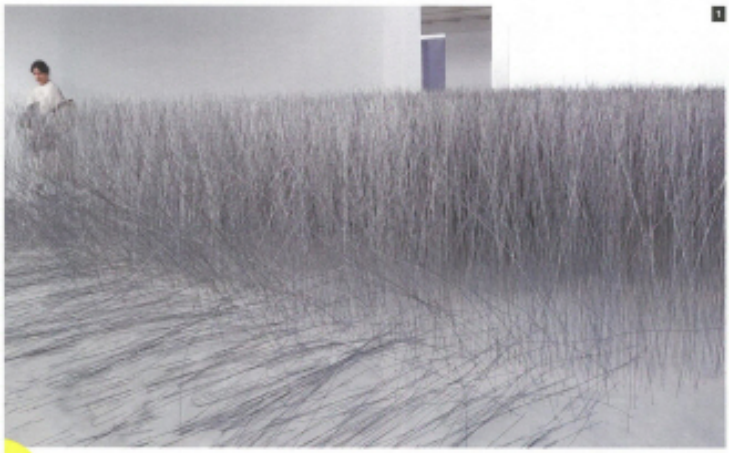
Korean Wave

January, 2020 | edited by 고성연

Korean Wave

이제는 '미술 한류'라는 표현을 굳이 내세울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 작가들의 행보는 눈에 띈다. 그래도 세계 주요 도시의 내로라하는 문화 예술 공간이든, 인적은 다소 멀하지만 숨겨진 보석 같은 공간이든 K-아티스트'를 마주치면 반가운 건 사실이다. 이번 호에는 글로벌 무대를 누비며 작가다 창조적 여정에서 의미 깊은 자취를 남기고 있는 3명의 미술가를 소개한다. 이미 대가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 이우환(1936년생), 글로벌 스케일을 무섭게 넓혀가고 있는 이배(1958년생), 그리고 아직은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는 젊은 작가로서 파리 전시를 계기로 커리어의 또 다른 챕터를 열고 있는 민정연(1979년생).



42

거장과 4할 세계

Lee Ufan

관람객들은 이우환의 조각 앞에서 느리게 조용조용 거닐고, 그의 회화 앞에서는 아예 멈춰 서서 숨소리마저 죽인다. 그러니 정작 작가 자신은 늘 측은을 뒤돌이 겉는다. 플래툰도 네 군데의 주요 미술관에서 초대를 받았으니 그의 걸음걸이가 얼마나 수북이 쌓일지 가늠하기 어렵다. 게다가 그중 하나인 소개에도 자꾸이 부족할 정도로 각각의 전시 규모가 꽤 크다. 뭘 고를지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욕심을 내 모두 소개하기로 했다. 네 전시가 저마다 다르고 또 중요하기에.

동서양을 아우르며 자취를 남기는 대가의 행보

지난해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7개월에 걸쳐 이우환 회고전이 열렸다(2019. 2. 27~9. 30). 바로 첫 번째로 소개될 전시 'Lee Ufan, Habiter le Temps'. 1960년대 일찍이 한국적이 50여 년을 이루는 이우환의 조형 언어를 사각학으로 볼 수 있는 회고전이었다. 15개의 전시실에서 그의 작업은 우리에게 각각 다른 주제의 질문을 던진다. 그의 첫 작품은 '만남'.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왜지만 말하는 것 같은 여러 돌덩이들이 덩어리 로고스(Logos,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는 본질과 아상에서 벗어나기 못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 다음 단계로 그의 조각은 '인식할 수 없는 혹은 설명이 지연될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는다. 그의 최근작은 현재 일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능하며, 무엇이 현실의 가장 큰 이슈인지, 그리고 '나'라는 '만이 근거해 있는 미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본다. 이우환 철학에 대해 알지 못하더라도 보고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히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전시였다. 나무나 자연스러워 처음에는 돌덩이 존재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이우환의 작업과 잘 어울린다. 이 음악은 사카모토 류이치(Ryuichi Sakamoto)가 이우환을 위해 작곡한 것이다. 작업과 돌의 근사한 이중주의 울림과 여운이 우리도 돌아고 있다. 두 번째, 중국 상하이의 당대예술관(RAM)에서는 이우환, 프랑스의 아브 클랭, 중국의 딩 딩(Ding)이 함께한 3인전 (The Challenging Souls)가 열렸다(2019. 4. 28~7. 28). 1960년대 이후 현대 사회적 격변을 이겨낸 세 예술가를 비교해서 살펴보는 예술문화의 깊이를 조사하는 흥미로운 전시였다. 특히 아브 클랭과 이우환, 두 거장의 흥미로운 프랑스가 있다. 아브 클랭의 상징은 모노톤(Monotonie-Symphonie Monotone-Silence(1947~1961)는 작가 특유의 모노톤 작업세월 20분간 모노톤으로 연주하고 또 다른 20분은 침묵하는, '인위적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약간 놀은 곡이다. 또한 케이지의 '4분 33초'(1952)와 맥락을 같은 작품이다. 이우환은 오브제 '이 프로젝션스'가 있다. 사각 물감으로, 일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이우환은 다른 색으로 칠한 유리 물을 떠는 퍼포먼스 '관계항—도면항'(2019)을 통해, 자연물이 인위적이를 주는 묘상을 보여준다.

미술관이 거장을 대하는 자세

세 번째는 '현대미술의 성지'로 추앙받는 뉴욕 디아 비콘(Dia Beacon) 미술관에서 지난해 5월 초 막을 연 이우환 상설전. 비콘행 기차를 타면, 출발 직후 5분가량 아무런 다른만 지나가다가 갑자기 강과 산이 눈앞에 펼쳐져 탄성이 나온다. '국경이 긴 터널을 빠져 나오자, 눈이 고정된다. 빛이 일부러 희뿌옇거나는 기법부터 아스라한 소실 (상국) 첫 문장이 겨울이 아닌, 가을의 단풍 버전으로 제공된다. 하늘을 제를 닦은 한폭폭의 수직부터 고층 빌딩 숲에서 감지기 수많이 세워진 풍경에는 비전의 흔적도 있다. 인스펙션스 거너커서린 작품 마운트와 레벤하는 듯하다. 이 미술관이 기존에 사용했던 면적만을 버리고 비전 지역으로 집 안한 설득력을 내뿜는 이유가 있다. 디아 비콘의 명성을 익히 아는지라 전혀 기대를 했는데도 그 기대를 넘어설 정도로 전율을 줬다. 플랫폼도. 네 번째는 허르본의 아르본 미술관에서 지난해 9월 말에 시작해 오는 9월 13일까지 거의 1년에 걸쳐 개최되는 전시 'Open Dimension'. 이전에 '관계항' 연작 10점과 신작 회화 '대화(2019~2019)' 4점이 전시되고 있다. 허시혼 미술관은 이우환의 전시를 위해 7곳의 설치 작품을 모두 치우고 이전 공간 전체(1,617㎡)를 그에게 제공했다고. 이제껏 한 작가에게 공간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는 미술관 개관 45년 만에 처음이라고. 결국이 하루 종 미술관을 방문한 사람은 10일 밤, 유난히 가장 어둠이 깊게 깔린다. 신랑사회의 상징인 철판과 자연의 상징인 돌 사이에는 대칭에서 발견 할 수 없는 불균형 '낙엽이 여기저기 놓인 채 산업과 자연의 관계를 시험하고 있었다. 작가의 날카로운 질문에 자연이 보답하여 마음을 건네는 듯한 신기한 경험이다. 그의 작업은 '장소 특정적(site-specific)일 뿐만 아니라 '관객적(?)' 에 제한되지 않은 열린 공간을 선사한다. 이 조각 작품들은 디아 비콘에 하루 종 미술관 건물과 함께 만들어진 것처럼 잘 어울린다. 하루 종일 돌을 돌아보아도, 철판의 질이가 종일 다 같지는 않아도 여전 돌들은 얼마를 더, 한쪽만 바로크 양식을 적용한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러했듯, 이우환은 아주의 '완벽한 현대적 신축물인 허시혼 미술관에 다른 공기를 불어넣어 완벽을 넘어서려는 긴장을 일으킨다. 빠르고 바쁜 올라운 시대에 그는 시간을 이상은 공간에 멈춰 서서 생각하도록 하며, 단일에길 수 없는 것을 새로운으로서 주변 공간을 열어 보인다. 그렇게 그만의 방식으로 미술을 통해 그는 공사를 제기한다.

미술은 전시 외에도, 이우환의 존재론은 아주 다양하게 발휘되고 있다. FIAC을 계기로 그를 철학의 마지 열어놓은 그의 작품들이 살아나며 화제를 모았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현대의 어슴가 무엇인지 알고,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말 하셨나 강조했다. 바로 이러한 작가의 태도에 많이 반하면은 '현대'를에 관심을 보는다는 것은 [...]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1 이우환, 'Relatum (formerly Van Fleet)', 1968/2019. 뉴욕 디아 비콘 미술관 전시 풍경. Photo by Jim Dunlop, Courtesy of Lee Ufan. 2 파리 팔레드 도쿄(Palais de Tokyo)에서 열리고 있는 'Lee Ufan: Open Dimension' 전시 풍경. Photo by Jim Dunlop, Courtesy of Lee Ufan 3 이우환, 'Relatum' (formerly 'Language'), 1971/2019. 뉴욕 디아 비콘 미술관의 전시 풍경. Photo by Jim Dunlop, Courtesy of Lee Ufan. 4 이우환, '관계항' 연작 중 'Relatum - a Corner'(1981/2018. 2019 FIAC 아트 페어 기간에 프티 팔레에 설치된 작품. Photo by Sebastiano Pellion di Persano, 제공처: 국제갤러리